광주일보
Weekend
1 제17482호 2판
2006년 6월 24일 토요일

여성그룹 출신 에이스들 변신

홀·로·서·기

박정아·아유미 솔로 본격 활동 나서
황보 댄스곡·간미연 발라드로 승부

박정아

간미연

박정아(25·쥬얼리), 황보(26·샤크라), 간미연(24·베이비복스), 아유미(22·슈가) 등 여성그룹 출신 '에이스(Ace)'들이 각각 홀로서기를 한다.

박정아와 아유미는 그룹의 테두리 안에서 '따로 또 같이' 활동하는 케이스. 간미연은 그룹 탈퇴, 황보는 그룹 해체로 솔로로 나선다.

음반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박정아는 7월 중순 뮤직비디오 공개와 함께 정규 1집을 발매한다. 그러나 활동은 영화 '날라리 종부뎐' 촬영이 끝난 뒤인 8월 초부터 시작한다.

박정아는 5월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아이 콘서트'에서 만난 자리에서 "해외 음악 시장의 트렌드인 팝록을 선보인다"며 "강한 록이 아니라 팝스타 힐러리 더프, 린제이 로한, 제시카 심슨처럼 소프트하면서도 대중성이 가미된 노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아의 소속사인 스타제국은 "영화 촬영이 끝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박근태, 김도훈과 해외 유명 작곡가들이 참여해 12곡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황보의 솔로 음반도 80%가 완성된 상태. 2003년 8월 샤크라 4집 이후 3년 만에 가수로 나서는 황보는 7월 말 미디엄 템포의 댄스곡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포지션 출신 작곡가 안정훈이 프로듀싱을 맡았다.

샤크라의 소속사인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황보는 오락 프로그램 출연을 자제하고 보컬 및 댄스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며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룹 시절 가려진 황보의 좋은 보이스 톤을 발견했다. 샤크라 멤버 중 솔로 가수로는 첫 주자"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그룹 당시 댄스 가수로 활동한 간미연은 발라드 가수로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9월 1집 발매를 목표로 비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방시혁이 진두지휘한다.

간미연의 소속사인 H2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방시혁 씨와 음반 콘셉트 회의를 가졌다"며 "간미연은 이달 말 같은 소속사 가수 별이 참석하는 중국 상하이 행사 때 함께 다녀온 후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다.

7~8월께 녹음, 재킷 및 뮤직비디오 촬영을 거쳐 9월부터 활동한다"고 밝혔다. 3월 H2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은 간미연은 2004년 4월 베이비복스 7집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수로 팬들과 만나게 된다.

최근 멤버 박수진의 탈퇴 소식이 알려진 슈가의 아유미도 솔로 가수로 나선다. 아직 구체적인 음반 콘셉트는 논의중이지만 솔로 가수로 나선다는 방침은 세웠다.

아유미의 소속사인 스타월드는 "월드컵이 끝나는 7~8월께 음반을 발매할 예정이다. 현재 몇몇 곡을 받아 가이드 녹음(일종의 데모 녹음)을 하고 있다. 댄스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차후 장르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계 여성 배우-극작가 콤비 연극 '위성'

브로드웨이 쏘아올리다

샌드라 오-다이애나 손
미국 연극계서 주목

미국 연극계에서 한국계 여성 배우-극작가 콤비가 뜨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캐나다 오타와 출신의 한국계 배우로 미국서 활동중인 샌드라 오(34·사진 왼쪽)와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출신의 극작가 다이애나 손(40). 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다이애나 손이 쓰고 샌드라 오가 주연을 맡은 '위성(Satellites)'이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연극무대에 최근 올려졌기 때문.

소수 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소재로 한 '위성'은 한국계 극작가가 쓴 작품에 한국계 배우가 주연을 맡은 것이 관심을 끌고 있다. 등장인물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자식의 교육을 위해 한국인 보모를 둔 건축가 니나(샌드라 오). 그리고 백인이 입양해 기른 흑인으로 실업자인 남편 마일스(케빈 캐럴). '위성'이라는 타이틀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맴도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두 한국계 연극인들은 199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만난 후 우정을 나눠왔다. 다이애나 손은 미국의 유명 TV드라마 '웨스트 윙(The West Wing)'과 '법과 질서(Law & Order : Criminal Intent)'의 시나리오 작가다. 그간 베릴라 커 극작부문 상을 포함 다수의 권위 있는 극작 부문 상을 받았으며 현재 예일드라마스쿨에서 극작 관련 강의를 맡고 있다.

샌드라 오는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배우다. 와인 시음 여행을 떠나는 두 중년 남자의 사랑과 삶을 그린 영화 '사이드웨이스(Sideways)'에 출연했다. 그는 현재 미국 ABC 방송의 '그레이스 아나토미(Grey's Anatomy)'에서 크리스티나 양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영화부문 여우조연상과 미국배우조합상 TV드라마 시리즈부문 여자 연기상을 탔다.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강적 인질과 인질범으로 만나 서로에게 동화되는 범죄자와 형사를 그렸다.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극장, 밀리오레,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럭기 넘버 슬레븐 조쉬 하트넷, 브루스 윌리스 등 초호화 배우들이 출연해 양대 범죄조직간의 암투 속에서 반전과 복수극을 펼친다.	롯데(광주·첨단), 무등, 메가박스,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밴디다스 19세기 멕시코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믹 액션극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두 여인의 좌충우돌 은행털기 대작전이 그려진다.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하남), CGV(상무), 하미, 목포 메가라인, 순천 프리머스
착신아리 어느날 갑자기 휴대폰으로 전송된 죽음의 메시지를 본 아이들은 공포에 휩싸인다.	롯데(첨단), 메가박스,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프리머스
비열한 거리 '꽃미남' 조인성이 삼류조폭 조직의 2인자로 등장해 비열한 세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엑스맨 최후의 전쟁 다양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들이 등장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존재의 의미를 되물었던 '엑스맨' 세번째 시리즈다.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포세이돈 1972년도에 나왔던 진 핵크만 주연의 재난영화 클래식 '포세이돈 어드벤쳐'를 리메이크한 1천500억짜리 블록버스터 해양재난영화다.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밀리오레,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미션 임파서블3 톰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임무를 수행하던 이단 헌트(톰 크루즈)는 작전 수행중 자신의 아내가 납치당하는 위기에 처한다.	롯데,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헐리우드
이온 플러스 2011년, 바이러스에 의해 지구 인구 99%가 사망하고, 과학자 "트레버 굿차일드"가 개발한 백신으로 생존한 5백만 명만이 삶을 지속하게 된다.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CGV(상무)
아시아영화제 쉽게 만날 수 없는 아시아 각국의 영화 7편이 상영된다.	광주극장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